









# 당창건기념일을 자랑찬 로력적성파로 맞이할 열의로 들끓는 협동벌

## 공격전에 박차를 가해준 혁신적인 일본새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사주군 농촌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치고 있다.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지!”

이런 불타는 맹세를 안고 군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가을걷이를 적기에 앞당긴다. 다그쳐 끝내고 낱알털기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다.

혁신적인 사업방법과 일본새로 올해 영농전투의 마지막공격전에 박차를 가해준다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주목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을걷이를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디다.》

승리의 신성전투는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공격적인 일군들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적기에 앞당기도록 하여 올해 농사결속을 지난해보다 앞당길 목표를 내세웠다.

“중전과 같은 로력과 수단으로 그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들 자신의 사업방법과 일본새부터 혁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각각한 이들은 현실에 맞는 사업방법들을 적극 찾아 받아들이었다.

### 사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 시기와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진행한 사실을 보자.

그전에는 보여주기사업을 주로 군소재지주변 농장에서 진행하곤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은 이 사실에 주의를 돌리었다. 군은 크게 웃지구다 아래지구로 구분되어었다.

아래지구의 농장들중에는 군소재지와의 거리가 200리 되는 농장도 있다. 때문에 제일 먼곳에 있는 농장일군들이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하려면 왕복 수백리길을 오가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분초를 다투며 애써 지는 낱알을 빨리 거두어들여야 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시간이었다. 보여주기사업도 알곡 증산상을 위해 필요할것만큼 응당 그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였다.

책임일군들은 이런 필장에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다. 우선 보여주기하는 대상을 몇개 지구에 정하고 농장일군들이 해당 장소에서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장일군들이 좋아하였는 말할것없고 누구나 보여주기사업에 열성적 참가하였다. 더욱 좋은 것은 거리가 먼 판래도 보여주기 사업에 자주 참가할수 있었던

초급일군들까지 농장일군들과 함께 와서 새로운것을 많이 보고 배울수 있게 되였었다.

농장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하여 보고 배운것을 실천에 구현한 결과는 좋았다. 농장원들이 전에 없던 왕성한 생산의욕을 가지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가을걷이의 매 공장에서 질과 속도를 증진보다 몇배로 높여나 갔던것이다.

특히 아래지구 농장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내륙, 옥강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일군들은 이신작적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농장원들이 나라살뜰을 책임진 주인된 본분을 다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이들은 농장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정의 사업을 심화시키고 결된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여기에 고무된 농장원들은 분조농사는 나의 농사라는 자각을 보다 깊이 새겨안고 강령이대배기와 이삭따기, 오소리 벗기기 등 비롯한 모든 공정을 적기에 기술적수준으로 수행하면서 불이 번쩍 내게 일손을 다 그쳤다.

일군들은 가을걷이시기의 하

루하루를 혁신창조로 빛내이며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자랑찬 로력적성파로 맞이하려는 불타는 열의를 안고 승리의 결속선을 향해 총돌격해가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의해 창조적이며 전투적인 일본새를 더욱 힘있게 발휘해나갔다.

일군들이 일단 내세운 목표수행을 위한 사업에서 주도성, 창조성을 발휘한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아래지구 농장들의 낱알은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이 개를 들이대고 떠밀어간 사실을 보자.

아래지구에는 웃지구보다 경지면적이 많다. 때문에 여기서 가을걷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야 군적으로 올해농사결속을 빨리 할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서 중심이 되는 낱알은반 속도를 높여내고 있다고 본 일군들은 발이 닳도록 뛰며 뜨락포드리아와 산간지대에 알맞는 든든한 달구지외바퀴를 제작해 해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마을을 돌지 않고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기계를 빈틈없이 세우는데 앞장붙었다. 이들은 공장, 기업소들이 웃지구에 집중되어있는 조건에서 아

###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의 주된 임무는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혁신성과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디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밤이었다.

구역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관리위원장 로기남동부는 제2작업반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모습이 보였던것이었다.

위원장가 하여 다가선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원들이 밤중 내기 시작하니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어늘린 버포기들을 배 두렁에 날라다 쌓고있었다.

《오늘 가을은 포전인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비가 내리기에 혹시 비물에 버가 잠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의 주된 임무는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혁신성과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디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밤이었다.

구역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관리위원장 로기남동부는 제2작업반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모습이 보였던것이었다.

위원장가 하여 다가선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원들이 밤중 내기 시작하니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어늘린 버포기들을 배 두렁에 날라다 쌓고있었다.

《오늘 가을은 포전인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비가 내리기에 혹시 비물에 버가 잠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의 주된 임무는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혁신성과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디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밤이었다.

구역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관리위원장 로기남동부는 제2작업반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모습이 보였던것이었다.

위원장가 하여 다가선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원들이 밤중 내기 시작하니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어늘린 버포기들을 배 두렁에 날라다 쌓고있었다.

《오늘 가을은 포전인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비가 내리기에 혹시 비물에 버가 잠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의 주된 임무는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혁신성과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디다.》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 가을걷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밤이었다.

구역에서 진행된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관리위원장 로기남동부는 제2작업반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일하고있는 모습이 보였던것이었다.

위원장가 하여 다가선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농장원들이 밤중 내기 시작하니 비에 흠뻑 젖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어늘린 버포기들을 배 두렁에 날라다 쌓고있었다.

《오늘 가을은 포전인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비가 내리기에 혹시 비물에 버가 잠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 분덕군 만흥협동농장에서

분덕군 만흥협동농장의 동가지리기가 주목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날의 낱알이라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야 하겠습디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일군들은 낱알털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낼수 있는 방도의 하나를 효과적인 동가지리기방법을 받아들여이는데서 찾았다.

올해는 지난 시기와 달리 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리용하고있는 조건에서 실정에 맞는 동가지리기를 해야 비의 수분함량을 기술적수준으로 보장하여 낱알털기속도를 높여먼저 질을 보장할수 있었다.

가을은 벼를 오래동안 논판에 썩는오래동안은 이슬에 젖고 늦게는 마르면서 벼알껍질이 벗겨내어다 단을 묶을 때 벼알이 적지 않게 떨어진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비를 맞으면 낱알의 물기함량이 많아지고 숙취작용이 세져 영양물질이 많이 소비되므로 천일무게가 훨씬 가벼워져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일정하게 마른 벼는 제때에 단을 묶어 동지리를 쳐야 낱알허실을 막으면서 낱알털기를 질적으로 할수 있었다. 그래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받아들인것이 중점적인

형식이 아니라 《+》모양의 동가지리기였다. 즉 벼이삭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모양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이때 벼단을 2.5~3.0개정도 쌓되 높이가 1.5m여로 작게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풍동이 잘되어 벼를 기술적수준으로 탈곡할수 있을뿐아니라 비가 내려도 벼이삭이 젖는것을 막을수 있었다. 이것은 종합탈곡기와 함께 이동식탈곡기를 리용하여 포전에서 낱알털기를 하는 조건에서 아주 효과적이었다. 벼이삭을 짧은 기간에 말리며 보장할수 있으므로 낱알털기실적을 올릴수 있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일부 포전들에서 논 판상태, 낱알털기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인형동가지리기를 받아들인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벼단을 움직이는 거리가 멀어지고 벼이삭이 잘 마르지 않았다. 특히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에서는 동지리를 치는때 물이 많이 들었다.

《+》모양의 동가지리기를 받아들인것부터 이런 현상을 막을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효과적인 동가지리기를 받아들인데 맞게 로력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였다. 지금 이것은 응을 내고있다. 낱알털기속도를 높이며서도 질을 보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 1%의 알곡예비를 어떻게 찾았는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벼를 잘 거두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끈기있게 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 거두어야 하겠습디다.》

신흥군 경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철근동부는 당의 뜻대로는 곡식이 벼단을 여러번 옮기는 과정에 적지 않게 허실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탈곡기에 의한 낱알털기 속도를 높이고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타산해보아도 지금은 이동식탈곡기들만으로는 계획된 기간에 낱알털기를 계속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업반들에 고정설치되어있는 종합탈곡기들을 리용해야 하였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벼단을 탈곡까지 지어들이는 과정에 여러번 옮기게 될수 있었다.

결국 이것은 벼 정보량 수확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없었다.

시급한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논의의 초점은 한몫으로 집 일군들은 가을걷이시기의 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벼를 잘 거두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끈기있게 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 거두어야 하겠습디다.》

신흥군 경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철근동부는 당의 뜻대로는 곡식이 벼단을 여러번 옮기는 과정에 적지 않게 허실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탈곡기에 의한 낱알털기 속도를 높이고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타산해보아도 지금은 이동식탈곡기들만으로는 계획된 기간에 낱알털기를 계속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업반들에 고정설치되어있는 종합탈곡기들을 리용해야 하였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벼단을 탈곡까지 지어들이는 과정에 여러번 옮기게 될수 있었다.

결국 이것은 벼 정보량 수확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없었다.

시급한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논의의 초점은 한몫으로 집 일군들은 가을걷이시기의 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벼를 잘 거두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끈기있게 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없이 거두어야 하겠습디다.》

신흥군 경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장철근동부는 당의 뜻대로는 곡식이 벼단을 여러번 옮기는 과정에 적지 않게 허실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탈곡기에 의한 낱알털기 속도를 높이고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타산해보아도 지금은 이동식탈곡기들만으로는 계획된 기간에 낱알털기를 계속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업반들에 고정설치되어있는 종합탈곡기들을 리용해야 하였는데 그러한 조건에서 벼단을 탈곡까지 지어들이는 과정에 여러번 옮기게 될수 있었다.

결국 이것은 벼 정보량 수확고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없었다.

시급한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논의의 초점은 한몫으로 집 일군들은 가을걷이시기의 하



낱알털기를 허실없이 제때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든다. -영양군 관수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 소백수플에서 풍성한 남새 수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듯 일제를 때려부신 할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백수플에서 풍성한 남새수확이 한창이다. 통이 얇은 배추며 깎두리는 별방지에서 생산하는 남새 못지 않다.

저울에 부른데 의하면 무우 한개의 무게가 2.5kg이나 된다. 백두산명령혁명전적지관리소 일군들과 작업원들은 3정보에서 수확한 수십의 남새를 세 대당 수백kg씩 나누어주고 답사속영과 식당과 저장창고에도 넣었다.

백두산이 지척인 소백수플에서 남새농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고지에서 유일하게 심어 가꾸는 남새라고는 갖박에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면 먼곳에 가서 자동차로 김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듯 일제를 때려부신 할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백수플에서 풍성한 남새수확이 한창이다. 통이 얇은 배추며 깎두리는 별방지에서 생산하는 남새 못지 않다.

저울에 부른데 의하면 무우 한개의 무게가 2.5kg이나 된다. 백두산명령혁명전적지관리소 일군들과 작업원들은 3정보에서 수확한 수십의 남새를 세 대당 수백kg씩 나누어주고 답사속영과 식당과 저장창고에도 넣었다.

백두산이 지척인 소백수플에서 남새농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고지에서 유일하게 심어 가꾸는 남새라고는 갖박에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면 먼곳에 가서 자동차로 김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듯 일제를 때려부신 할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백수플에서 풍성한 남새수확이 한창이다. 통이 얇은 배추며 깎두리는 별방지에서 생산하는 남새 못지 않다.

저울에 부른데 의하면 무우 한개의 무게가 2.5kg이나 된다. 백두산명령혁명전적지관리소 일군들과 작업원들은 3정보에서 수확한 수십의 남새를 세 대당 수백kg씩 나누어주고 답사속영과 식당과 저장창고에도 넣었다.

백두산이 지척인 소백수플에서 남새농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고지에서 유일하게 심어 가꾸는 남새라고는 갖박에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면 먼곳에 가서 자동차로 김정

### 3대혁명소조원들의 친부모가 되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듯 일제를 때려부신 할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백수플에서 풍성한 남새수확이 한창이다. 통이 얇은 배추며 깎두리는 별방지에서 생산하는 남새 못지 않다.

저울에 부른데 의하면 무우 한개의 무게가 2.5kg이나 된다. 백두산명령혁명전적지관리소 일군들과 작업원들은 3정보에서 수확한 수십의 남새를 세 대당 수백kg씩 나누어주고 답사속영과 식당과 저장창고에도 넣었다.

백두산이 지척인 소백수플에서 남새농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고지에서 유일하게 심어 가꾸는 남새라고는 갖박에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면 먼곳에 가서 자동차로 김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듯 일제를 때려부신 할일유격대원들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소백수플에서 풍성한 남새수확이 한창이다. 통이 얇은 배추며 깎두리는 별방지에서 생산하는 남새 못지 않다.

저울에 부른데 의하면 무우 한개의 무게가 2.5kg이나 된다. 백두산명령혁명전적지관리소 일군들과 작업원들은 3정보에서 수확한 수십의 남새를 세 대당 수백kg씩 나누어주고 답사속영과 식당과 저장창고에도 넣었다.

백두산이 지척인 소백수플에서 남새농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고지에서 유일하게 심어 가꾸는 남새라고는 갖박에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면 먼곳에 가서 자동차로 김정

백두산명령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인포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한 이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무도회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경축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8일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대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 로력적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음악회장소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멸의 혁명실적을 수놓으시며 우리 당과 혁명위업의 승리적완성과 위대한 미래를 위한 만년 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관현악서곡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관현악 《장군님 백마 타고 달려오신다》, 《장군님 생각》, 《발걸음》, 바이올린 2중주 《내 심장의 목소리》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로동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준엄한 혁명의 폭풍을 헤쳐나온 천만 군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여온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승연한 예술적화폭속에 되새겨보게 하는 곡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무대에는 관현악 《바다 만송가》, 《그때는 처녀》,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의 곡목들이 울렸다.

민족적향취가 넘치는 배합 관현악의 품만한 울림으로 장내를 진감시킨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기록하신 존함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당이 있기에 조선혁명은 주체의 한길에서 영원히 백승을 떨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교향곡 《당에 드리는 노래》로 막을 내린 음악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지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당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8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창건기념탑, 개신문,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은 사상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동력전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모여든 청년들로 설레이고있었다.

우리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전위대로 키워주시고 청년운동발전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흥분의 경이 뜨겁게 분출되는 무도회장들에 《인민의 축원을 받으시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당은 장군님의 품》, 《영광을 드려라 위대한 우리 당에》 등의 노래가 연이어 울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우리 당을 영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동력전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모여든 청년들로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불꽃을 역세게 틀어쥐고 강성할 때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는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열정을 담은 《청춘의 자랑》, 《달려가자 미래로》, 《애우자》를 비롯한 경쾌한 노래소리가 10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청춘의 희열과 열정이 차넘치는 무도회장에는 《혁명야애 사과바다》, 《진선행렬차》, 《홀리리》 등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봉착 강성국가건설의 전적로를 열어제끼는 오늘의 총선군에서 조선속도창조의 기수가 될 드높은 결의로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이날 각 도소재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9돐경축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가 8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맹일꾼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평양역 초급직맹위원장 남춘빈은 《연설 뿌리》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이 기초가 된 조국방위에서 지체없이 당창건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어머니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태양으로 영생한다고 강조하였다.

웅변 《불멸의 업적》에서 2.8직동 청년단장 로동자 로만기는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어머니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로 끝없이 충실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지닌 혁명적당, 투철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웅변 《위대한 수호자》, 《조선속도》라는 제목에 출연한 만경대혁명사적관 직맹회설립원 원정옥, 평양철길대 직맹이동해설강사 류창순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시며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속도창조로 우리 인민을 불러일으키고계시는

데 대하여 감동깊게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만년세대로 지켜주시고 빛내이시기에 선군조선은 위대한 사상의 강국, 혁명전통이 출기차게 이어지는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와우도구역출판물보급소 직맹초급단체 부위원장 리숙연은 웅변 《위대한 북부자》에서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품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선군정쟁을 이어가시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헌신속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앞당겨지고있다고 그의 웅변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문수물놀이장, 마시명스키

장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대하여 경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김명혁은 웅변 《만북의 꿈에서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직맹이동해설강사 김은정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온 혁명의 1세, 2세대처럼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웅변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봉착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직맹일꾼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혁명적열정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주제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의 승전소식으로 온 나라 천만군민이 끓이는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이고있는 지금 뜻깊은 10월의 환희를 더해주시어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뜻깊은 10월의 환희를 더해주시어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 런일 성황리에 진행

이 인산강기는 경기장면들을 보여 주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된 태권도 단체경기에서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팀의 선수들이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여 박력있게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상대팀들을 이기었다.

단체맞서기경기에서는 매 링에서 여러 몸무게급의 남자선수들이 출전하여 치열하게 승부를 다투었다.

서로가 맞잡고 기회를 노리다가 도 순간에 상대방의 약점을 포착하고 다양한 씨름수법을 적용하여 통쾌하게 이기는 씨름경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씨름경기에서 어른들의 씨름장면도 분반 하지만 애기씨름경기에 출전한 나 어린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칠 때마다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씨름경기에 못지 않게 각 도(직할시)를 대표하여 수십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힘겨루기를 하는 바둑경기경기 역시 장관이다. 손에 기발을 쥐고 손씨름이 제 자기 팀 선수들이 폭발적인 힘을 쓰도록 하는 각 팀 지휘자들의 모습도 볼만 하고 집단의 조직력, 단결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면서 힘을 합쳐 바둑을 당기는 선수들의 경기모습도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고있다.

한쪽에서는 바둑경기경기가 열기를 띠고 진행될 때 한쪽에서는 윗줄이기가 기쁨과 이성을 이 었갈리는 속에 벌어지고있다.

축구, 배구, 룡구, 로라스케트경기도 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조국조의 영예를 떨친 너자축구선수들처럼 내 나라를 빛내이는 훌륭한 축구선수들로 준비해갈 드높은 열의를 넘쳐있는 각 도(직할시)의 나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을 흥취진하며 평성이 편만한 높은 축구기초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드문한 방이로부터 불의적인 역습공격을 시도하는 팀들도 있고 첫시작부터 맹렬하게 공격을 들이대어 상대팀을 압박하는 팀들도

있다. 상대팀의 방아진을 허물기 위해 공격방향을 자주 바꾸기도 하고 대담하게 중장거리차별기를 시도하는 팀들도 있다. 현재까지 경기성적을 보면 평양시팀과 함경북도팀이 앞서나가고있다.

청춘러미 룡구경기판에서는 빠른 속도물기와 제치있는 전략, 정확한 던져넣기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너자룡구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있다.

단 한점이 모자라 경기에서 지고 아쉬워하는 팀들도 있고 점수차이를 많이 내고 조별편견에서부터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팀들도 있다.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남자배구경기 역시 체육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각각의 공격위력에서의 강한 타격과 든든한 막기, 제베른이 등에 의한 공방기와 공명력이 엇갈리는 남자배구경기에서는 평양시, 함경북도, 평안북도, 남포시팀들이 조별편견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조직자인 손춘남선수의 멋진 공명력에 의한 주장 김명국선수의 강타가 연속 성공되어 조별편견과 준결승경기에서 맞타드는 상대팀들을 모두 누르고 승리하였다.



## 제9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참가자들의 종합 발표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7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69돐경축 제9차 학생소년예술개인경연 참가자들의 종합발표회가 8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발표회에는 양금주 《우리 아버지》, 민오창 《고미워워 당의 품》, 너중창 《더 높이 부르자 김정일장군의 노래》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희망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나가는 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하모니카독주 《혁명군들이》, 고음저음독주 《세상은 내 나라》, 독무 《부채춤》을 비롯한 종목들에 담아 보여 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지니시고 온 나라 강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반영한 3중창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대원수님과 장군님의 모습입니다》,

구연 《과도소리》 등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발표회를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을 정히 모시고 학생소년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계시어 선군조선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판계부장과 청년동맹일꾼들, 평양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발표회를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소학교학생들이 출전하는 로라스케트경기가 로라스케트경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당의 은정속에 전국각지에 퍼려진 로라스케트장들에서 마음껏 기술을 익힌 나 어린 선수들의 로라스케트경기에서는 강인도, 평양시, 자강도팀 선수들이 앞선 자리를 차지하였다.

치열하게 승부를 다투며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되는 기간 각 도(직할시)에서 올라온 응원단들도 여러가지 응원기재들을 리용하여 특색있게 열광적인 응원으로 자기 팀 선수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경기장들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다.

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의 종목별경기들은 한가죽 혹은 같은 기관, 기업소종원들이 선수로 출전하는 경기도 있어 더욱더 이채를 띠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국방위방법목에서 조선속도창조의 거대한 열풍이 휘몰아치고 우리 체육인들이 높이 올린 승전포성이 메아리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린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는 온 나라 인민에게 뜻깊은 10월의 환희를 더해 주며, 체육경기들 북돋아주며 더욱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정순성 본사기자 리춘생









